

연구윤리 교육을 위한 영문 홈페이지 소개

예병일

연세대학교 원주외과대학 의학교육학과

English Resources for Research Ethics Education

Byung-Il Yeh

Department of Medical Education, Yonsei University Wonju College of Medicine, Wonju, Korea

[교육자료: 온라인 영상물]

영상물 제목: Resources for Research Ethics Education

저자: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인터넷 URL: <http://research-ethics.org/>

접근날짜: 2018년 10월

“강의 위주로 연구윤리수업을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필자의 답은 “할 수 있다. 그러나 효과는 거의 없다”이다. 중학교를 지나면서 자발적 동기에 의한 학습은 교실이 아닌 곳에서만 익숙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답을 가르쳐 주는 수업은 할 수 있을지언정 정답을 찾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강의식 수업은 그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정의란 무엇인가』로 유명한 마이클 샌델 교수의 윤리수업도 그의 수업에서는 가능하지만 이를 흉내 내본 필자의 수업에서는 같은 주제를 다룬다 해도 과학적 지식에 충만하여 정답 맞히기에만 열중하는 학생들의 소극적인 태도로 토론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약 10년 전부터 대학원 의학과에서 연구윤리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필자는 한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토론 수업을 하는 것은 거의 포기하고 있다. 대신 매주 수업이 끝나자마자 case 위주의 시험을 치고, 그 결과에 대해 다음 시간에 토의하고, 새 제목에 대해 수업을 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이것은 수업경험을 통해 그나마 낫다고 생각되는 방법을 선택한 것일 뿐이다.

그러나 외국인 학생 대상의 연구윤리수업에서는 수업시간 내내 case를 제시하고, 각자의 생각을 토론하는 수업을 한다. 학생들은 미리 수업제목에 대한 자료를 읽어 와야 하고, 수업에서는 case 문제

를 통해 연구윤리에 대한 이론을 토의하고, 각 나라의 연구윤리상황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진다. 이 수업에서 이용하는 자료는 <http://research-ethics.org/>에 제시된 것을 이용한다.

이 홈페이지는 미국 National Advisory Panel on Research Integrity (NAPRI)에 의해 만들어졌다. 연구윤리교육을 위한 자료 (“Resources for Research Ethics Education”)라는 제목을 가진 이 홈페이지는 introduction, topics, educational settings, discussion tools, about us의 메뉴로 구성되어 있는데 topics의 자료만으로도 연구윤리수업을 진행하기에 별 어려움이 없다.

Topics는 overview를 포함하여 15가지 주제로 구분되어 있고, 각 주제는 summary, background, regulations and guidelines, discussion, resources로 분류되어 있다. 필자의 수업방법은 매 수업을 앞두고 학생들이 summary, background, regulations and guidelines를 미리 읽어오게 한 후 discussion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함께 토론하는 것이다. 윤리수업에서 흔히 벌어지는 일은 이론적 토대 없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학습이 아니라 시간 보내기에 불과하므로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그 내용의 출처를 이야기하게 한다. 따라서 예습할 자료를 제대로 읽어 오지 않으면 수업에서 무엇인가를 얻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고, 자료

를 읽었다 하더라도 discussion에 제시된 상황이나 case 문제를 미리 연습하지 않았으면 깊이 있는 토론을 하기가 어렵다. 대신 resource에 각종 자료가 제시되어 있으므로 미리 문제를 풀기 위해 이런 자료까지 섭렵하게 되면 연구윤리의 깊이 있는 내용을 배우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과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정답 맞히기에 익숙한 우리나라 학생들은 답이 없어(?) 보이는 문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왜 그런 생각을 했는가에 대해 밑천의 바닥을 보이는 경우가 흔히 발견된다. 그래도 몇 주가 지나면 일부 학생들이 수업방법에 익숙해지면서 각종 연구윤리이론과 지침 등을 토대로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하기 시작하고,

또 청운의 꿈을 품고 타지 생활을 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들 중 일부는 수업에 꽤 잘 임하므로 주기만 하는 강의식 수업이 아니라 지식과 생각을 주고받는 일이 가능해진다. 이와 같은 수업을 통해 교수와 학생의 인간적 관계와 개인적 이해를 깊이 있게 할 수 있으므로 한 학기 수업이 끝날 때쯤이면 수업에 참여한 모든 학생들과 가까워질 수도 있고, 연구윤리에 대한 교육효과도 잘 얻을 수 있다.

지금 소개하는 인터넷 사이트는 연구윤리수업을 토론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업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